

2021년 9월 필리핀선교 기도 편지

GMS 명예 선교사 박광옥, 우예덕

2021. 9월 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요4:34-35)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 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사6:8)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 세상이 어수선한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는 황금물결이 넘실거리는 추수의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사람들은 전도가 매우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였다고 하나 이 때야말로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때가 아닌가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우리는 전도의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1. 감사한 일.

팬데믹으로 모두가 다 어려운 시기라고 염려 근심 걱정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경건한 성도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그들도 심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주님의 소망의 줄을 붙잡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어 감동입니다

1] 어느 주일날 예배후에 성도 한 분이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금년 70회 생신을 맞이하여 자녀들이 준 축의금을 모아 보람 있게 쓰고 싶다고 찾아오셨네요. 그래서 필리핀의 어느 목회자 가정이 푼푼이 돈을 모아 사택을 수리 보수하느라 애쓰는 교회가 있어 2층 지붕을 씌우는데 사용하도록 즉시 송금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 댁은 장모님 포함 총 8식구입니다. 그리고 아래층 사택은 10평도 안되는 작은 공간입니다. 이제 2층을 증축하면 많이 여유 있는 공간에서 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가정을 생각하며 흐뭇해 하는 것이 헌신자들의 보람과 기쁨이 아닐까요?

2] 제가 요사이 온 라인 강의를 하는데 가장 아쉽고 안타까운 일은 강의에 참여하고 싶으나 컴퓨터도 없고 인터넷도 연결되지 않아 강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현지 목회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은 연결되어 있으나 노트북이 없어 참여 못하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는데, 이번에 어느 성도님께서 저의 선교 기도편지를 보시고 컴퓨터 구입비로 3,000불을 보내주셨습니다. 새것으로 사면 좋겠지만 중고라도 잘 구입하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어 중고로 10대를 마련하도록하여 공급하는 중에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는 상상을 못합니다. 후원자께서도 흐뭇해 하실 줄 믿습니다

3] 사실 저는 요사이 코로나로 여전히 필리핀에 가지 못하고 있지만 필리핀 현지에 큰 사위 정성호 선교사와 큰 딸 박혜성 선교사가 남아 있어서, 저를 대신하여 현지의 상황을 파악하고 도움 일이 있으면 전달하고 컴퓨터를 구매하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어 선교의 3박자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 감사하고 있습니다. [3박자는 현지 목회자의 목회사역+헌신하는 후원자+애쓰는 선교사]. 아무쪼록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고 반갑게 대면하는 그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하며 기도합니다

2. 박광옥 선교사의 비 대면 On-line 강의.

1] 9월에도 계속하여 월, 화요일의 비 대면 On-line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월요일은 성경공부와 특강(목회학, 지도자론, 교회개혁학)

2) 화요일은 기도학 공부와 기도 모임

이러한 강의 내용은 필리핀 목회자들에게 신학과 신앙적인 훈련도 되고, 팬데믹으로 서로 대면으로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좋은 목회의 훈련과 교제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약 2시간씩의 강의시간이지만 여러 명의 현지 목회자들과 동시에 대화하고 교제하고 현지 형편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롬8:28)

앞으로 컴퓨터가 원활히 공급이 되면, 작년 초에 계획했던 [평신도 성경학교]를 개강하고 싶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필리핀의 평신도들 중에는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을 신학, 신앙적으로 잘 훈련시키면 하나님의 나라 복음전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강의할 때는 현지 시간에 맞추기 위하여 새벽 5시 이전에 일어나 강의했으나 한국에서는 1시간밖에 시차가 없어 저녁시간에 여유 있게 강의할 수 있어 많이 수월합니다

3. 목요일 여성 기도모임.

- 1] 9/2 = Topic =[Hope in Jesus]=[그리스도안에서의 소망]
- 2] 9/9 = Topic =[Spiritual Warfare]=[크리스천의 영적 전투의 승리비결]
- 3] 9/16 = Topic =[Attitude is Everything] =[매사의 신앙의 태도]
- 4] 9/23 = 7PIP 국제기도회 여성 합창 찬양(Virtual) 담당[to God be the Glory]

4. 필리핀 사역보고

1] 7PIP [7Years Pilgrim International Prayer Partnership] 국제기도회

- 1) 목적= 7년 동안 북한교회의 재건과 한국교회의 부흥과 세계선교를 위한 국제기도회 모임
- 2) 매월 3째 목요일(9월23일) 오후 2시[한국 시간]
- 3) 참가 국가 = 한국, 필리핀, 호주, 홍콩, 인도, 태국, 한국 연안선교회, 군선교회.
- 4) 9월의 7pip의 기도회 필리핀 담당자 = 사회/ 박광옥 선교사, 대표기도/ Nelson Carillo 목사,
필리핀 기도제목제시 = **Ptr. Leonora Odias Sumalinog** 찬양/ 필리핀 여성합창단
- 5) 대표 오치용목사는 [코로나 19]로 2개월간 입원했으나 잘 회복되어 퇴원하여 요양 중입니다. 아마도 10월부터는 같이 대면하여 기도회를 가질 것으로 믿습니다

2] Mabuhay Unida 교회

- 1) 목사 Simon Gregorio는 예배당과 사택 1층은 성북교회 박종근 장로님이 후원하여 건축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1층만으로는 8식구가 생활하기에는 공간이 태 부족이라 기도해 오던 중에 한국의 혜성교회의 집사님 한 분이 7순을 맞이하여 자녀들이 준 축금을 선교비로 후원해 줌으로서 2층을 증축하게 되었습니다

3] 마스크 후원

=/ 에세르 회사를 경영하시는 사장님께서 선교지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시고 [Covid-19]의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기꺼이 수 십만 장의 마스크를 보내주셔서 필리핀 교회에 큰 위로와 용기를 주신 사장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사장님께서 정기적으로 저의 선교를 후원해 주시고 계시며 이번에 필리핀에 컴퓨터를 보급하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컴퓨터 10대를 기증해 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귀한 물질로 후원해 주실 뿐 아니라 계속적으로 손들어 날마다 기도로 후원해 주시니 이 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분들이야 말로 선교를 도울 뿐 아니라 실제로 선교에 동참하시는 선교사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선적회사의 사정으로 아직 선적을 못하고 10월야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4] 총신대학교 인턴 학생들과 대화의 시간.

=/ 혜성교회는 매년 총신대학교 졸업반 학생들을 4명씩 초청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며, 1년 동안(토, 주일) 교회에 출근하여 목회를 실제로 배우고 훈련 받는 인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에는 [선배와 후배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고 지금까지의 저의 목회경험과 목회철학을 나누고, 또한 학생들의 진로와 애로를 듣고 같이 기도하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고로 저는 총신대학교 기독교교육과 67학번 제 1회 졸업생입니다]

5. 필리핀 교회를 위한 기도제목.

1) 델타 바이러스 양성 반응=

=/ [Covid-19]은 국제적인 상황이지만 필리핀도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환자수가 계속 수 천명대로 증가하고 있고, 요사이는 현지인들이나 선교사들이 많이 희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리핀은 의료 시설도 많이 부족하고 의술도 많이 부족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이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충분한 치료의 혜택을 주지 못하고, 또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현지에 있는 선교사들은 많이 불안 해하고 있습니다. 환자들도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병원을 회피하고 있어 양성 확진 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사망자의 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동선을 따라 파약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불안한 가운데 그냥 마스크만 쓰고 살고 있습니다





